

美 “엔비디아 H20칩 中 수출 재개는 희토류 ‘맞교환’ 카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H20 칩, 성능 낮아 문제 없어”
“중 개발자들 미 기술에 중독되게 충분히 팔고 싶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가하기로 한 배경에는 지난달 중국과 합의한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가 있다고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밝혔다.

◇미국 중국에 그래픽카드 수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H20 칩 수출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에 중국에 이런 칩 구매를 허용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막았고, 이후 중국과(희토류) 자석 합의를 하면서 우리는 중국에 칩을 다시 팔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자석 합의는 미중 양국이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무역 협상에서 중

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일부의 해제를 맞교환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러트닉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자석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전(H20) 오래된 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바이든은 중국에 판매할 수 있게 했고, 우리는 그 결정을 재고했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최신형 칩을 내놓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엔비디아가 최신형 칩인 블랙웰을 개발했고, H20과 H100 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판매를 허용한 H20 칩은 성능 기준으로 네 번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최고의 제품을 팔지 않는다.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좋은 제품도 팔지 않는다. 난 네 번째로 좋은 제품을 파는 것이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AI 반도체보다 “한 단계” 앞선 반도체를 개발하고, 그보다 낮은 사양은 중국이 계속 사도록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중국의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에 중독되도록 하는데 충분한 만큼을 팔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자 이보다 성능이 낮은 H20 칩을 제작해 중국에 수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중순 엔비디아가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수출을 통제했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이 철

강 관세를 부과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철강사를 보조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 일본, 한국은 자국 철강기업에 전력을 무료로 또는 사실상 무료로 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우리한테 철강을 덤프하고 우리 국내 철강기업들을 망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철강사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이지만 한국 정부와 철강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엔비디아 추가 나스닥 치고차=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미 당국의 대(對)중국 AI 칩 판매 승인에 15일(현지시간) 170달러선을 넘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4.04% 오른 170.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엔비디아 주가가 170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가는 장중 172.40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

다.

시가총액도 4조1620억 달러로 불어났다. 한때 시총 1위였던 애플(3조1230억 달러)과는 1조 달러 이상으로 격차를 벌렸다.

이날 상승은 미국 정부가 대중국 수출을 규제해 온 엔비디아의 AI 칩 H20에 대한 판매를 승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 재개와 함께 엔비디아 대항마로 꼽히는 AMD도 중국에 AI 칩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AMD는 이날 “골 MI308 인공지능(AI) 칩을 중국에 다시 판매할 계획”이라며 “미 상무부가 중국으로의 제품 수출을 위한 자사 라이선스 신청서 검토를 재개할 예정으로, 승인이 나는 즉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AMD 주가도 전날보다 6.41% 상승한 155.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규모 유지’ 법안 美 하원 군사위 통과

‘2만 8500명’ 국방수권법안
전작권 전환 위험성 평가 포함
트럼프 행정부 국방 전략 주목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미국 하원군사위를 통과해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판문을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 율 스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 라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 도 국방수권법의 문안과 같은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의회는 2022회계연도부터 국방수권법에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는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연합뉴스

방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 왔다.

이는 강제성을 담보하진 않지만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의회의 권고로 받아들여져 왔다.

앞서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는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전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오징어 게임’ 시즌2, 美 에미상 후보 지명 불발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 <사진>가 올해 미국 최고 권위의 방송 시상식인 에미상 후보에 지명되지 못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의 제77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 후보 발표에서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 등 부문의 후보 명단에 들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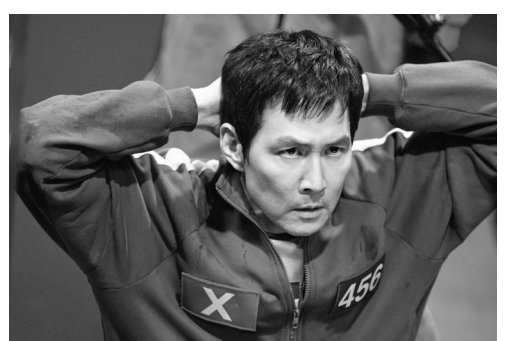
앞서 배리하이더 등 미국 매체들은 ‘오징어 게임’이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 등 부문에 지명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이날 에미상 후보가 공식 발표된 뒤 USA투데이, 데드라인 등은 이번 시상식에서 예상을 뒤엎고 후보에 지명되지 않은 작품 중 하나로 ‘오징어 게임’을 꼽았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도 푸대접을 받았다는 지적이었다.

미 경제잡지 포브스는 “오징어 게임”이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 후보를 포함해 연가나 프로덕션 디자인, 시각효과, 스티븐 연기 등 부문에서(후보작으로) 지명될 수 있는 작품으로 예상됐지만, 완전히 불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즌2에 대한 평가는 첫 시즌만큼 높



지는 않지만, 여전히 로튼토마토(미국의 평점사이트)에서 83점을 자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매체들은 ‘오징어 게임’ 시즌2와 시즌3이 사실상 ‘파트 2’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인 데도 시즌2가 이야기를 중간에 끊으면서 마무리된 탓에 완결성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시즌3은 내년 시상식 출품 대상이어서 내년에는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올해 에미상 시상식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공개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

美 살인죄 사형수 30년만에 형 집행…트럼프 2기 급증

미국에서 살인죄로 30년간 감옥에 있던 사형수에게 15일(현지시간) 집행 유예가 중단되고 형이 집행됐다.

이는 미국에서 올해 들어 26명째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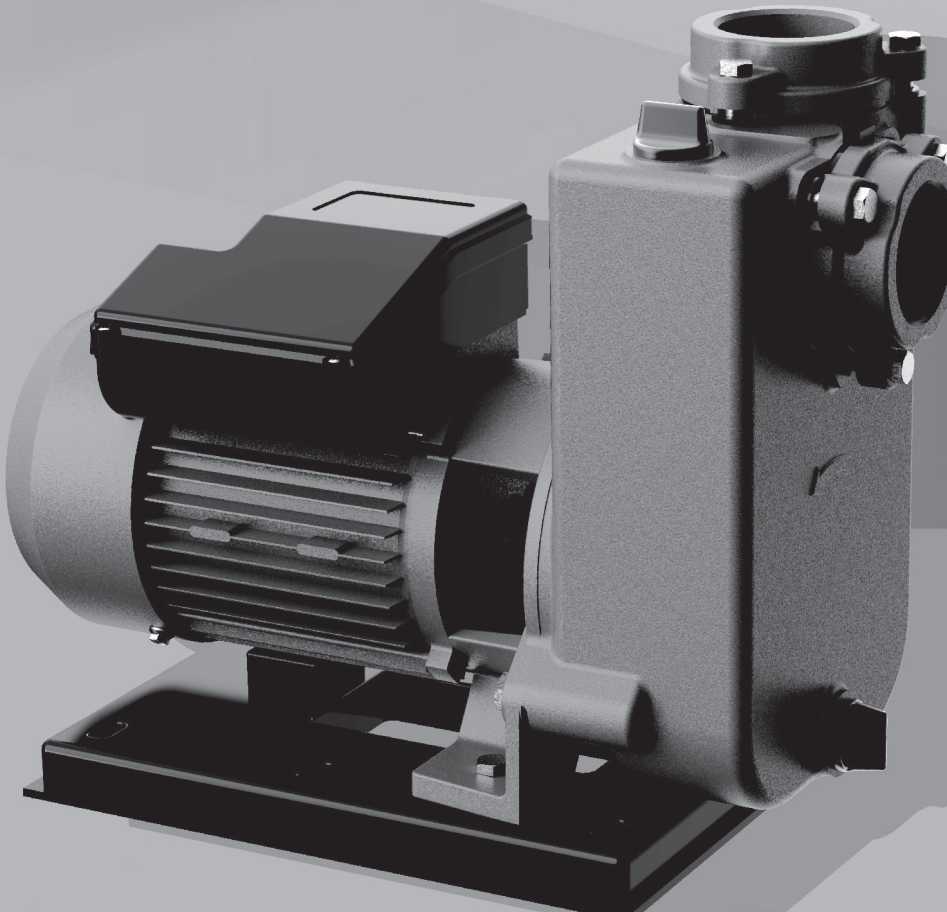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54세 남성인 마이클 벨은 이날 플로리다 주립 교도소에서 약물 주입으로 사형을 받았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6명째 됐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전체 집행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이자, 2015년 28건에 달했던 사형 집행 이후 10년 만에 최다다.

이에 따라 종교계에서 항의가 이어졌고, 지난 주에는 100여명이 론 디센티스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